

「마음 열고 | 찬양과 나눔」

- 목마른 자들아(찬송 526장, 구 316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베데스다’(자비의 집) 연못에서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동하게 한들 자기 힘으로 그 못에 뛰어 들 수 없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날마다 희망고문을 당하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마음 다해 | 말씀과 나눔」

1. 막연히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1-9절).

- 1) 베데스다 못가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까?(2-3절)
- 2)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4절)
- 3)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8절)

나눔 1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집에 경쟁과 불신, 미신과 희망고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자비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잘못된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까?

2.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십니다(10-15절).

- 1) 38년 된 병자가 견게 된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10절)

2) 성전에서 다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14절)

3)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병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15절)

나눔 2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나은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왜 안식일에 집을 들어 노동을 하나며 질책합니다. 약자에 대한 자비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경직된 형식주의는 생명을 경시하고 인격을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형식주의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나눔 3 예수님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식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계속 죄에 머물면 일회적 안식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이후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눠 봅시다.

「 마음 모아 | 함께 기도 」

삶 _ 미신적인 희망고문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공동체 _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에게 비판과 혐오가 아닌 포용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1. 목 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 라 이 곳에 좋은 샘 흐 르도 다
 2. 이 샘에 솟는물 강 같이 흘 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 네
 3. 생 명수 샘물을 마 신자 마 다 목 다시 마르지 아 니하 고
 4. 이 샘의 이름은 생 명의 샘 물 저 수정 빛같이 늘 맑도 다

힘 쓰고 애쓰미 없 을 지 라 도 이 샘에 오면 다 마 시 겠 네
 빈 부나 귀천에 분별 이 없 이 다 와서 쉬고 또 마 시 겠 네
 속 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 어 영 원히 솟아 늘 풍 성 하 리
 어 린양 보좌가 근 원 이 되 어 생 명수 샘이 늘 그 치 잦 네